

한·중 수교 10주년의 경제성과와 문제점

요 약

오는 8월 24일로 역사적인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이한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투자는 괄목할 발전을 이루었다.

대중국 수출은 7배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10년간 누적 무역흑자가 333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중 수출 의존도는 3%대에서 12%를 넘어서면서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은 제2위의 시장으로 부상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소수 품목 집중현상도 현저하게 개선돼 10대 수출품목의 비중이 83.2%에서 74.7%로 낮아진 가운데 지난 해 대중국 수출품목 숫자는 1,030개로써 대미 수출품목 숫자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성·시별 수출측면에서는 광둥성 등 화남지역으로의 수출비중이 감소하면서 중국 경제의 핵으로 부상중인 상하이 등 화동지역으로의 수출비중은 크게 상승하고 있다.

수교후 10년간 대중 투자도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92년 271건, 2억 6백만 달러였던 투자실적은 올 6월말 현재 6,634건, 58억 3천만 달러로 폭증했다. 건당 평균 투자금액도 76만 달러에서 88만 달러로 늘었다.

투자지역 편중현상도 개선되고 있다. 산둥성과 동북 3성 투자비율이 10년 전 58%에서 지난 해 44% 대로 낮아진 가운데 같은 기간 상하이 등 화동지역 투자비율은 14%에서 28%로 높아졌다. 투

자업종에서도 제조업의 비중이 '92년 93.4%에서 2001년에 87%로 낮아지면서 서비스업종 투자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수출과 투자에 있어 이 같은 경제성과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경제교류는 몇 가지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낳았다.

우선, 대중 수출실적은 증가했지만 한국산 제품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며 일본과 미국, 홍콩의 중국시장 점유율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일단 해외로 나간 자국산 제품을 다시 수입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중국상품 수입 실적은 '98년 30.2억 달러에서 '01년 87.8억 달러로 190% 증가해 같은 기간 중국 전체의 수입증가율 73%를 크게 웃돌고 있다. 특히, 전기전자, 합성수지, 기계류, 유기화학품, 철강 등 우리나라 대중 수출 상위 5개 품목의 경우, 최근년도 중국의 자국산 수입증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대책마련이 요망된다.

현시비교우위(RCA) 지수로 분석한 우리 주력 상품의 중국내 경쟁력에서도 기계류는 경쟁력 열세, 철강은 경쟁력 악화로 나타났다. 전기전자는 보통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중 간 상품교역이 산업내(품목간) 교역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해 분석한 품목별 무역특화지수는 현재까지는 우려할만한 정도는 아니지만 향후 중국의 생산력 확대에 따라 한국의 수출특화 정도가 낮아질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중 투자에 있어서는 투자목적과 지역별 경영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입지선정과 내수시장 진출노력이 미흡한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초창기 진출기업들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독자투자를 선호해 토지임차료 등 경비부담 과다로 경쟁력 약화가 초래되기도 했다. 또, 홍콩과 대만계 기업들은 중국정부가 자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발표하면 공동 대응하는데 반해, 한국기업들은 이 같은 응집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상당 수 중소기업들이 사내 중국전문인력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투자에 나서 현지 조선족 인력에게 지나치게 의존함에 따른 문제점도 나타났다.

지난 10년 간의 대중국 경제교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요청된다.

첫째,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로 특화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원부자재 위주의 대중 수출품목 구조를 고부가가치형 특화상품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일반 제품의 경우, 중국 및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어 IT, BT 등 떠오르는 신산업 분야 시장선점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중국의 반덤핑 조사와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조치를 감안, 저가수출 공세는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

다섯째, 시장 수급상황 등 경기흐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통해 채산성 확보를 기해야 한다.

여섯째, 기술투자와 M&A 등 다양한 투자기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일곱째,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한국내 산업공동화에 대비해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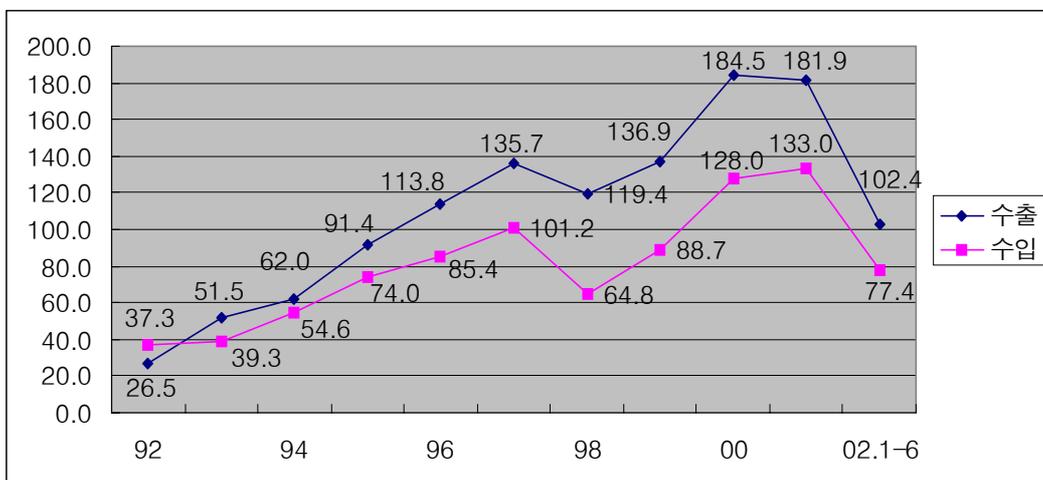
1. 수교 10년의 경제적 효과

□ 대중국 수출 10년새 약 7배 증가

- 수교 당해년도인 '92년 26.5억 달러였던 대중 수출은 '01년 181.9억 달러로 6.9배 증가
 -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실적 증가폭(1.9배)을 크게 앞지름
 - 중국은 '92년 우리나라 제6위의 수출대상국이었으나 '01년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제2위로 부상
- 대중 수입은 37.3억 달러에서 133억 달러로 3.6배 증가

대중국 수출입 추이

(단위 : US\$ 억)



자료원 : kotis(www.kotis.net) 한국 관세청 통계기준

□ 수교 이후 누적 무역수지 흑자 333억 달러

- 대중 무역수지는 한·중 수교이전 해마다 적자가 심화되는 구조였으나 수교를 계기로 '93년부터 큰 폭의 흑자로 전환

- 이는 '92년 수교 이후 대중 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현지 투자기업의 한국산 원부자재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

* 대중 투자는 '91~'92 기간중 239건, 1.8억 달러였으나 '93~'94 기간에 1,222건, 8.9억 달러로 늘었고 이후 급증세를 보임(이상 실행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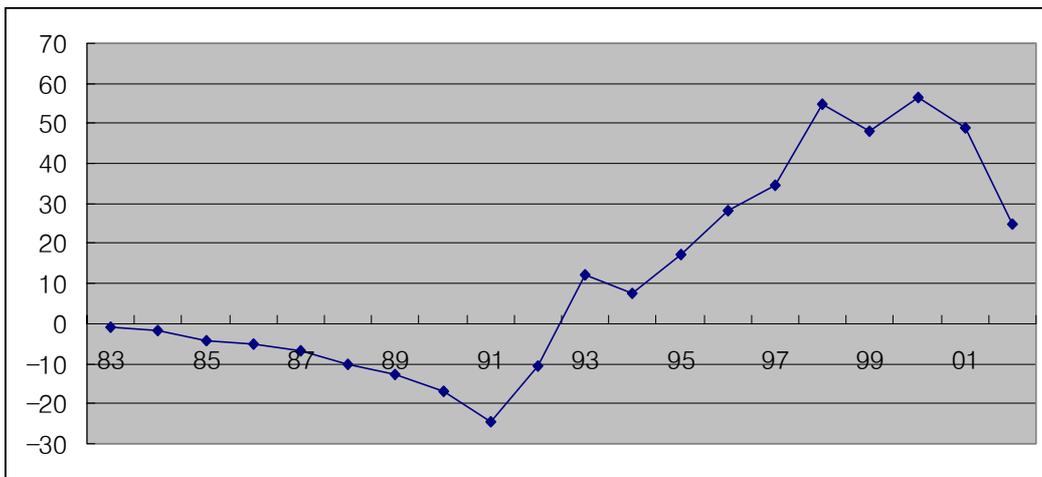
○ '93~'02. 6월 대중 누적흑자는 333.1억 달러에 달함

- 홍콩 경유분 감안시, 연간 대중 흑자는 1백억 달러 선

- 이에 따라, 중국 측의 무역불균형 해소 요구가 양국간 통상 현안으로 대두

대중국 무역수지 추이

(단위 : US\$ 억)



자료원 : kotis(www.kotis.net) 한국 관세청 통계기준

□ 대중 수출의존도 급상승

○ 대중 수출의존도는 '92년 3%대에 불과했으나 2001년에 12%를 넘어섬

- 같은 기간 중 미국과 일본시장 의존도는 각각 23.6%에서 20.8%로, 15.1%에서 10.9%로 낮아짐

- 2001년 현재 수출실적이 있는 우리나라 무역업체 31,137개사 중 10,142개사가 대중국 수출업체임(수출업체 3곳 중 1곳 꼴)

* 대일 수출업체 : 9,708개사, 대미 수출업체 : 11,368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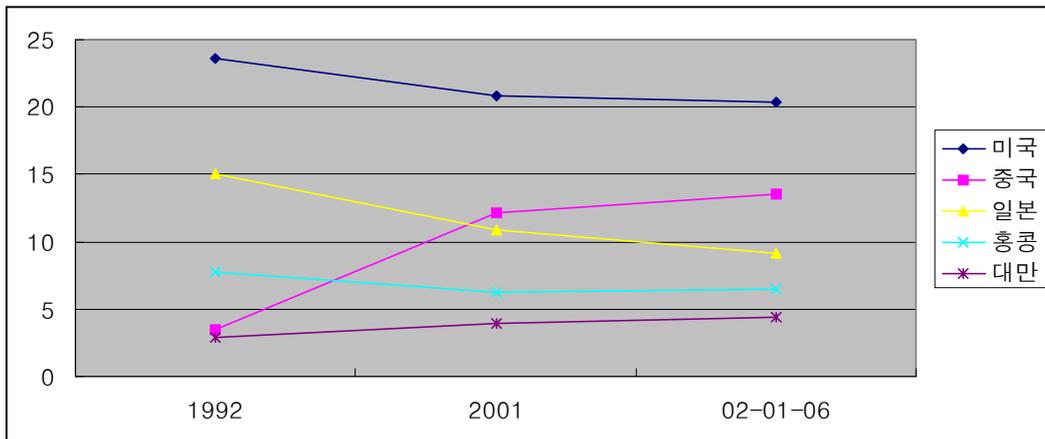
- 2002년 들어 1~6월 현재 미국시장 의존도는 20.4%로 소폭 낮아진 반면, 중국시장 의존도는 13.5%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음

○ 중국시장 의존도는 원부자재 부문에서 특히 높게 나타남

- 석유화학제품의 중국 의존도가 '92년 16.5%에서 '01년 39.8%로 수직 상승('02. 1~6월 중에는 40.5%로 다시 상승) 가운데 유류와 철강제품이 각각 20%선, 섬유류가 15%대의 중국시장 의존도를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 5대 수출시장의 비중 변화

(단위 : %)



주 : 5대 수출시장은 2002년 1~6월 실적 기준

자료원 : KOTIS(www.kotis.net) 한국 관세청 통계기준

□ 수출품목 구조 개선

○ 10년 새 소수 품목 집중현상이 크게 개선됨

- '92년 대중 수출은 1위 품목(철강제품)의 비중이 30%를 초과한 가운데 10대 품목의 비중이 83.2% 였음
- '01년에는 1위 품목(석유화학제품)의 비중이 18% 대로 낮아졌고 전자부품, 산업용 전자제품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10대 품목의 비중이 74.7%로 낮아짐
(이상 MTI 2단위 기준)

대중국 10대 수출품목 구성비 변화

(단위 : %)

1992		2001	
품목명	비중	품목명	비중
철강제품	30.2	석유화학제품	18.3
석유화학제품	17.3	광물성연료	9.2
직물	10.1	전자부품	8.9
가죽 및 모피제품	5.4	직물	8.8
섬유원료	4.9	산업용 전자제품	7.9
산업기계	4.1	철강제품	7.6
제지원료 및 종이제품	3.4	가죽 및 모피제품	3.7
광물성 연료	3.1	가정용 전자제품	3.7
전자부품	2.6	산업기기	3.4
정밀화학제품	2.1	정밀화학제품	3.2
계	83.2	계	7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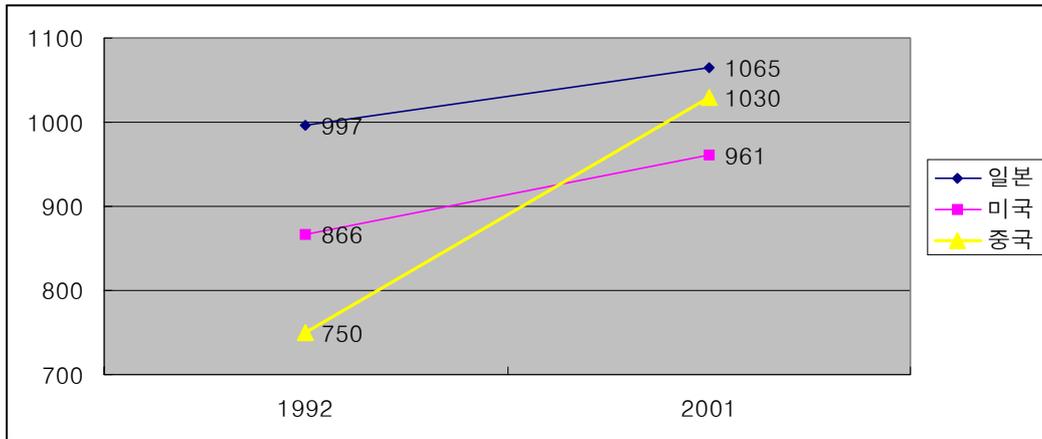
주 : 10대 수출품목은 MTI 2단위 기준

자료원 : KOTIS(www.kotis.net) 한국 관세청 통계기준

- 대중국 수출품목 숫자는 '92년 750개에서 '01년 1,030개로 280개 증가함(HS CODE 4단위 기준)
 - 수출 품목 수에서 중국은 미국시장을 이미 앞지렀고 일본시장에 근접함
('92~'01 기간 중 대미 수출 품목 수는 866개에서 961개로 95개 증가했고 대일 수출 품목 수는 997개에서 1,065개로 68개 증가에 그침)
 - 2002년 들어선 1~6월 중 대중국 수출품목이 975개로 가장 많고 일본과 미국의 경우, 각각 969개와 898개를 기록하고 있음

대일·중·미 수출품목 숫자 추이

(단위 : 개)



주 : 품목은 HS 4단위 기준

자료원 : KOTIS(www.kotis.net) 한국 관세청 통계기준

□ 華南수출 비중 줄고 華東지역 늘어

- 성시별 수출 측면에서 '98년만 해도 화남지역(광둥성, 푸젠성, 광시자치구, 하이난성)이 우리나라 전체 대중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했으나 '01년에는 34.5%로 비중이 줄어들음
- 반면, 같은 기간 상하이, 장쑤(江蘇)성, 저장(浙江)성 등 화동 지역의 비중은 18.4%에서 26.4%로 뚜렷이 상승함
- 그러나, 산시(山西)성, 안후이(安徽)성, 허난(河南)성 등 중부 권은 비중이 커지고 있으나 아직 2% 대에 머물고 있음
- 서부대개발 사업지역인 서부권 비중(0.5%)도 미미
- 이 같은 변화는 일차적으로 중국의 개방확대에 따라, 대외무역권한을 가진 중국기업 숫자가 늘어난데다 각 지역의 항만 등 인프라시설이 개선된데 기인함

최근 대중국 권역별 수출비중 추이

(단위 : US\$ 백만, %)

	1998	1999	2000	2001
동북권 遼寧, 黑龍江, 吉林, 內蒙古	7.26	7.41	7.33	7.06
환발해권 北京, 天津, 河北 山東	28.34	29.55	28.85	29.07
화동권 上海, 江蘇, 浙江	18.38	21.21	24.33	26.37
화남권 廣東, 福建, 廣西 海南	43.36	38.22	35.78	34.55
중부권 山西, 安徽, 江西 河南, 湖南, 湖北	1.78	2.38	2.42	2.40
서부권 陝西, 甘肅, 青海 寧夏, 新疆, 西藏 雲南, 貴州, 四川	0.88	1.23	1.03	0.55

자료원 : KOTIS(www.kotis.net)

⇒ 9쪽 ‘최근 대중국 성·시별 수출금액 및 비중 추이’ 참조

□ 투자규모 10년새 28배 증가

- ‘92년 12월 271건, 2억 6백만 달러였던 대중 투자금액(실행기준 누계)은 ’02년 6월말 현재 6,634건, 58억 3천만 달러로 각각 25배와 28배 증가(건수기준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
- 대중 투자는 한-중 수교후 폭발적으로 확대되면서(현재 총 해외투자 건수의 42.5% 차지) 대중 원부자재 수출도 증가함
 - 그러나, 금액 기준으로는 총 해외투자의 16.1% 수준
 - 외환위기 중 주춤했던 대중 투자는 2000년 이후 회복세

최근 대중국 성·시별 수출 금액 및 비중 추이

(단위 : US\$ 백만, %)

	1998	1999	2000	2001
동북권	1,089.7	1,277.7(17.3)	1,699.2(32.9)	1,651.8(△2.8)
遼寧	874.8	1,025.7(17.2)	1,495.5(45.8)	1,394.9(△6.7)
黑龍江	141.4	144.7(2.4)	115.1(△20.5)	148.4(29.0)
吉林	63.4	84.1(32.7)	79.3(△5.8)	105.1(32.6)
內蒙古	10.1	23.2(129.5)	9.3(△-60.0)	3.4(△63.7)
환발해권	4,256.9	5,094.2(19.7)	6,711.5(31.7)	6,797.5(1.3)
北京	710.1	757.2(6.6)	1,090.5(44.0)	1,057.4(△3.0)
天津	1,049.0	1,400.0(33.5)	1,939.7(38.5)	1,892.3(△2.4)
河北	152.9	181.9(18.9)	191.8(5.4)	171.6(△10.5)
山東	2,344.9	2,755.1(17.5)	3,489.5(26.7)	3,676.2(5.4)
화동권	2,761.5	3,657.7(32.5)	5,664.5(54.9)	6,167.5(8.9)
上海	1,068.6	1,293.4(21.0)	1,997.6(54.4)	2,244.9(12.4)
江蘇	1,118.9	1,636.0(46.2)	2,604.1(59.2)	2,572.7(△1.2)
浙江	574.0	728.3(26.9)	1,062.8(45.9)	1,349.9(27.0)
화남권	6,512.0	6,590.1(1.2)	8,330.3(26.4)	8,079.4(△3.1)
廣東	5,520	5,692.6(3.1)	7,166.6(25.9)	6,998.9(△2.3)
福建	906.6	823.4(△9.2)	1,072.9(30.3)	995.4(△7.2)
廣西	34.1	24.9(△27.0)	50.7(103.6)	45.8(△9.8)
海南	51.3	39.2(△23.7)	40.1(2.3)	39.3(△2.0)
중부권	268.1	410.1(52.9)	563.2(37.3)	562.2(△0.2)
山西	10.1	47.8(371.4)	68.4(43.1)	24.2(△64.6)
安徽	72.1	100.8(39.8)	115.4(14.4)	146.7(27.1)
江西	22.1	32.5(47.2)	29.7(△8.5)	20.9(△29.5)
河南	42.6	48.3(13.6)	39.1(△19.1)	39.1(0.0)
湖南	66.1	82.7(25.0)	205.7(148.8)	218.7(6.3)
湖北	55.1	98.0(77.8)	104.9(7.0)	112.6(7.3)
서부권	131.7	211.9(60.9)	239.2(12.9)	129.0(△46.1)
陝西	32.1	37.9(18.3)	25.5(△32.8)	37.2(46.1)
甘肅	10.6	6.4(△39.9)	9.5(49.7)	8.3(△13.3)
青海	4.4	4.3(△0.1)	2.2(△50.1)	3.8(76.1)
寧夏	5.2	3.3(△37.4)	11.3(264.8)	2.2(△80.2)
新疆	16.6	7.9(△52.2)	9.9(24.2)	5.5(△44.0)
西藏	3.2	32.1(892.5)	1.6(△94.9)	1.9(19.1)
雲南	8.8	27.5(211.7)	13.9(△49.3)	9.6(△31.2)
貴州	8.9	5.6(△36.5)	12.1(115.0)	10.8(△10.5)
四川	41.9	86.9(107.1)	153.2(76.4)	49.7(△67.6)

자료원 : KOTIS(www.kotis.net)

- 건당 평균 투자금액은 '92년 말까지 76만 달러에서 '02년 6월 말 현재 누계 기준으로 88만 달러로 늘어남

한국의 대중국 투자현황

(단위 : 건, US\$ 천)

연도 \ 구분	허가기준		실행기준	
	투자건수	투자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991	112	84,722	69	42,469
1992	269	221,386	170	141,127
1993	631	623,201	381	264,182
1994	1,065	821,008	841	633,084
1995	884	1,242,920	747	838,267
1996	925	1,952,518	734	888,472
1997	750	910,227	628	716,191
1998	316	895,435	257	677,441
1999	552	470,943	454	337,207
2000	895	694,731	751	378,660
2001	1,068	885,054	990	466,144
2002. 1~6	657	793,431	580	421,595
누계 2002. 6	8,177	9,664,370	6,634	5,827,383

자료원 : 수출입은행

□ 투자지역 확대 추세

- '92년 산둥성과 동북 3성(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투자가 전체 대중 투자금액의 58%를 차지했으나 '01년 12월 말 현재 44.8%로 낮아짐
 - 같은 기간 건수 기준으로는 69%에서 65%로 소폭 감소
- 같은 기간 중 華東(상하이, 장쑤, 저장)지역 및 광둥성 투자금액의 비율은 14.1%에서 28.2%로 높아짐
 - KOTRA가 '02년 2월 실시한 중국시장 진출동향 설문조사에서는 우리 기업의 투자선호지역이 상하이-베이징-산둥-광둥 등의 순서로 나타나 앞으로 이 지역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

□ 업종 다양화 움직임

- 제조업 투자의 비중이 건수 기준으로 '92년 93.4%에서 '01년 87%로 떨어지면서 투자 업종이 다양화되고 있음
- 부동산·서비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비중 확대 추세

대중 투자의 업종별 구성

(단위 : %, 건)

1992		2001	
업종	비중	업종	비중
제조업	93.4(253)	제조업	87.1(5,272)
농림어업	2.9(8)	부동산 및 서비스업	3.3(202)
숙박음식점업	1.5(4)	도소매업	3.1(189)
광업	0.7(2)	숙박음식점업	2.6(156)
도소매업	0.7(2)	농림어업	1.7(103)
운수창고업	0.4(1)	건설업	0.8(46)
부동산 및 서비스업	0.4(1)	운수창고업	0.7(42)
건설업	0.0(0)	광업	0.5(29)
통신업	0.0(0)	통신업	0.2(13)
금융보험업	0.0(0)	금융보험업	0.0(1)
기타	0.0(0)	기타	0.0(1)
계	100.0(271)	계	100.0(6,054)

주 : () 수치는 투자 건수임

자료원 : 수출입은행

2. 남겨진 문제점

□ 중국시장 점유율 하락세

-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출실적이 증가하면서 2001년 현재 중국의 제4위 수입대상국이지만 '98년 이래 중국시장 점유율은 지속 하락 추세에 있음
- 일본, 미국, 홍콩도 중국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음

- 반면, 중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자급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함
 - 2001년 중국의 주요 수입대상국은 일본-대만-미국-한국-독일-중국의 순으로써 중국의 자국산 제품 수입이 늘고 있음
 - 중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금액은 '98년 30.2억 달러에서 '01년 87.8억 달러로 190% 증가해 같은 기간 중국 전체의 수입증가율 73%를 크게 웃돌고 있음
 - 중국의 중국상품 수입은 '02년 1~6월 중에도 전년동기대비 60.8% 늘어나 주요국별 수입증가율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동기간 중 금액은 62억 달러)
 - 중국의 대중국 수입은 ▷ 홍콩 등 해외 중계무역상에 의한 중국산 제품 대중국 재수출(re-export) ▷ 중국기업의 해외 단순 가공후 중국내 재반입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최근 주요국별 중국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

	1998	1999	2000	2001	2002.1-6
일본	20.15	20.38	18.45	17.58	17.99
대만	12.11	11.79	11.33	11.23	13.09
미국	11.89	11.76	9.94	10.76	9.40
한국	10.70	10.39	10.31	9.61	9.51
독일	4.98	5.03	4.63	5.62	5.56
중국	2.15	2.50	3.19	3.60	4.82
홍콩	4.75	4.16	4.19	3.87	3.81
러시아	2.58	2.55	2.56	3.27	3.22
말련	1.91	2.18	2.43	2.55	3.05
싱가포르	3.01	2.45	2.25	2.11	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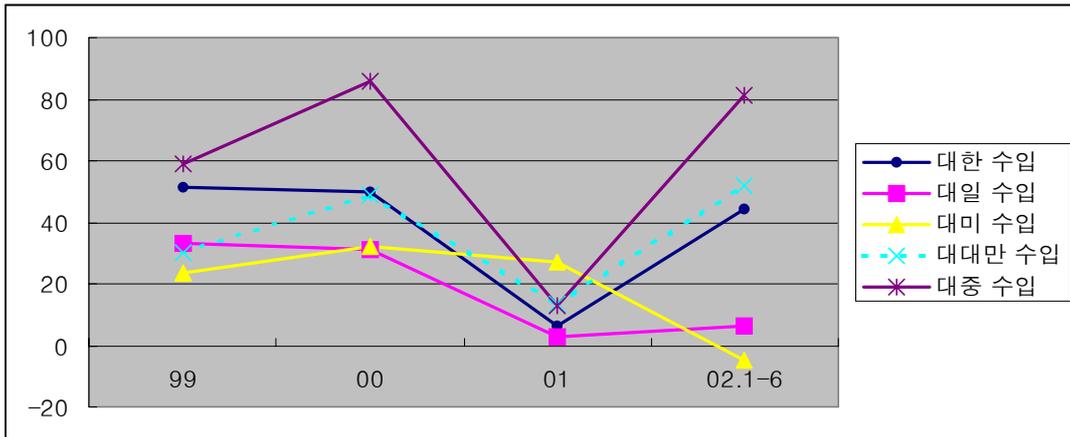
자료원 : KOTIS(www.kotis.net) 중국해관통계 기준

□ 대중국 주력 수출품, 중국 자체조달 비율 높아져

- 2002년 1~6월 중 중국의 대한국 5대 수입 품목(중국해관통계 기준) 가운데 대부분에서 대한국 수입증가율 보다는 중국의 자체조달(중국의 중국산 제품 수입)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우리나라 대중 주력 수출품별 중국의 국별 수입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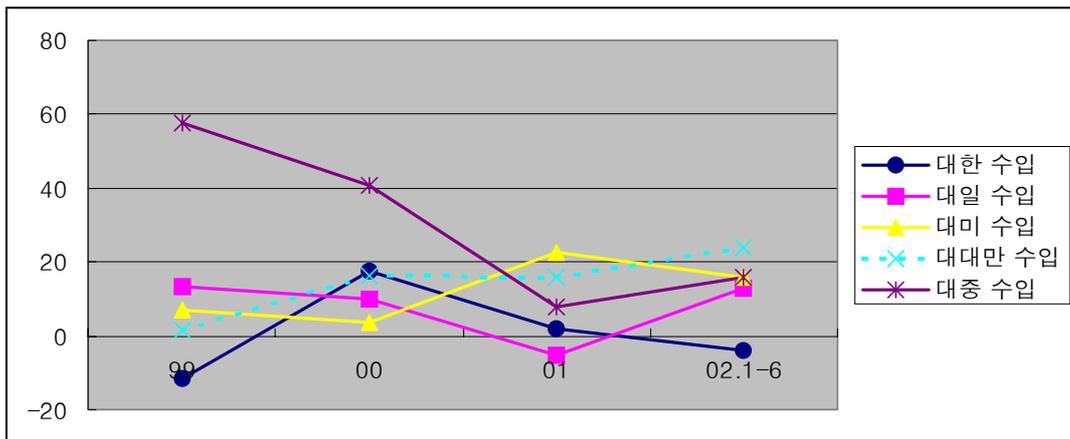
[전기전자]



주 : 품목은 HS 2단위 기준

자료원 : KOTIS(www.kotis.net) 중국해관통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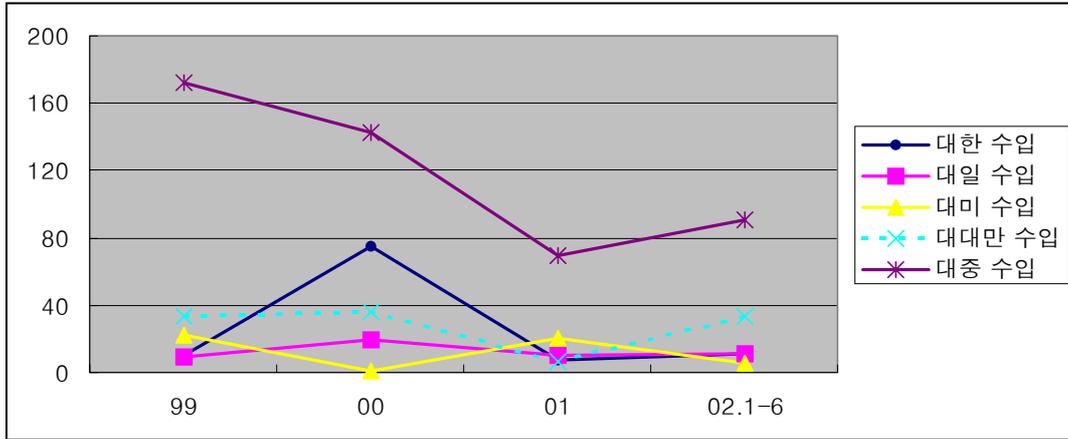
[합성수지]



주 : 품목은 HS 2단위 기준

자료원 : KOTIS(www.kotis.net) 중국해관통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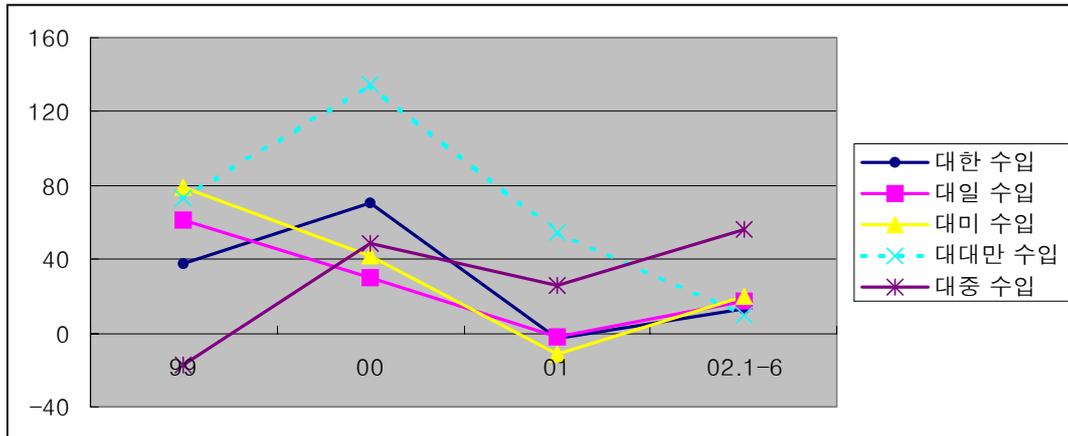
[기계류]



주 : 품목은 HS 2단위 기준

자료원 : KOTIS(www.kotis.net) 중국해관통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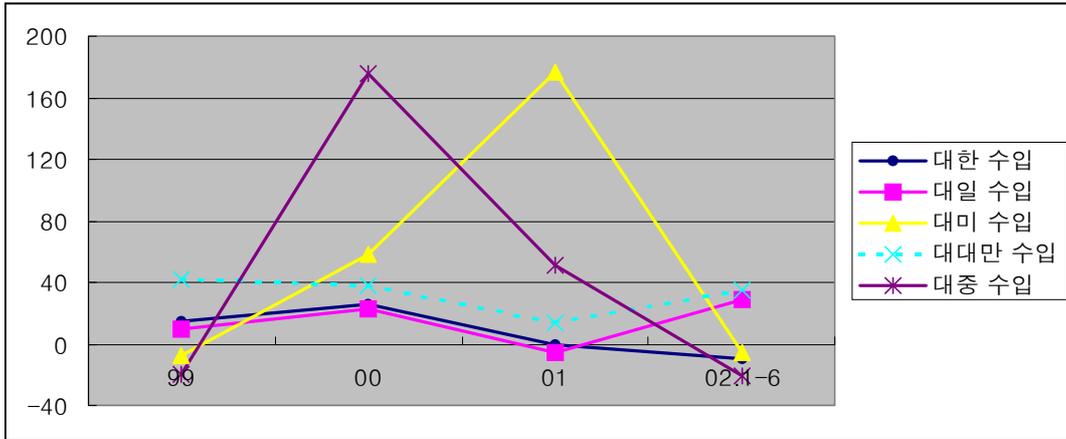
[유기화학품]



주 : 품목은 HS 2단위 기준

자료원 : KOTIS(www.kotis.net) 중국해관통계 기준

[철강]



주 : 품목은 HS 2단위 기준

자료원 : KOTIS(www.kotis.net) 중국해관통계 기준

□ 현시비교우위(RCA) 지수도 하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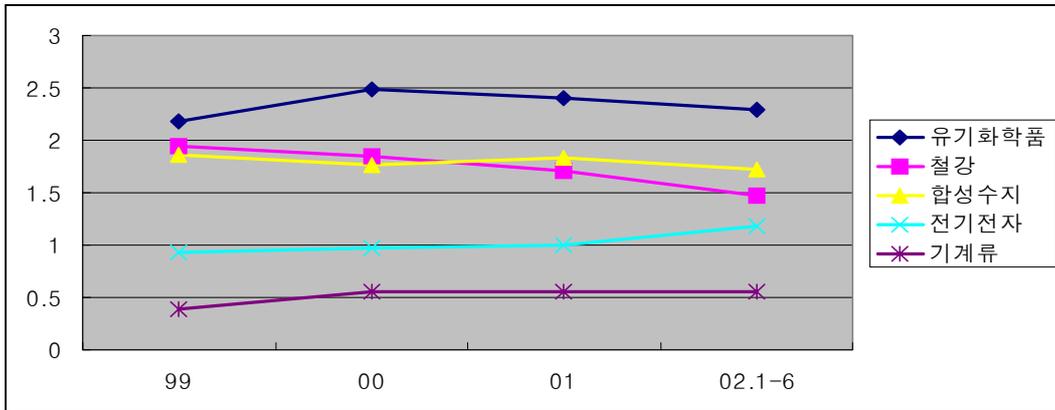
○ 현시비교우위(RCA) 지수를 통해 최근 4년간 중국시장 내 한국상품의 경쟁력 추이를 분석한 결과, 대중국 상위 5대 수출 품목 가운데 ‘매우 경쟁력있는’ 품목(RCA 지수 2.5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유기화학품(지수 2.2→2.5→2.4→2.3), 합성수지(1.9→1.8→1.8→1.7))는 ‘비교적 경쟁력’있음
- 철강(1.9→1.8→1.7→1.5)은 지수 감소세로 경쟁력 악화
- 기계류는 증가세를 보이거나 0.5선으로 경쟁력 열세

※ $RCA지수 = \frac{(\text{중국의 해당품목 대한국 수입} / \text{중국의 해당품목 총수입})}{(\text{중국의 대한국 총수입} / \text{중국의 총수입})}$

* RCA지수 2.5 이상 : 매우 경쟁력있음, 1.25~2.5 : 비교적 경쟁력있음, 0.8~1.25 : 보통 수준, 0.8 이하 : 경쟁력 열세

주요 품목별 중국내 현시비교우위(RCA)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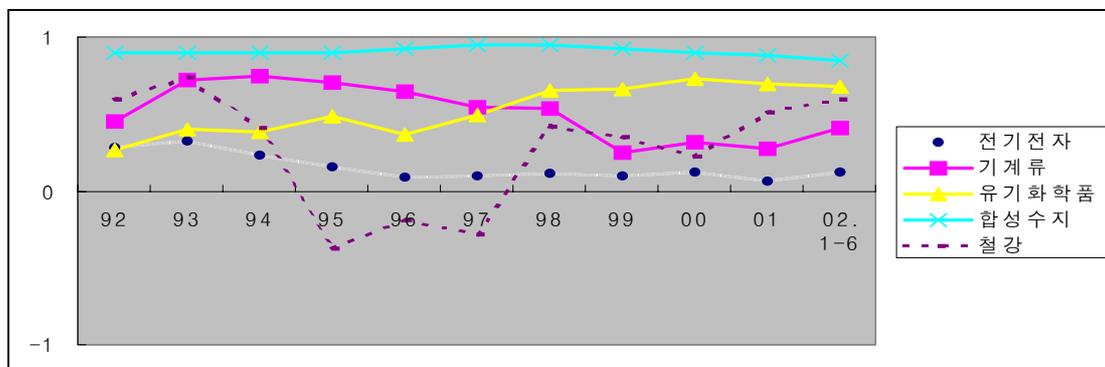
주 : 품목은 2002년 1~6월 대중국 1~5위 수출품목(전기전자-기계류-유기화학품-합성수지-철강의 順)
 자료원 : KOTIS(www.kotis.net) 중국해관 통계기준

□ 무역특화지수 악화

- 한·중 간 상품교역은 산업내(품목간) 교역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대중국 10대 수출품목(HS 2단위)의 대중국 무역특화지수는 아직은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중국의 생산력 확대추세에 따라 한국의 수출특화 정도가 낮아질 것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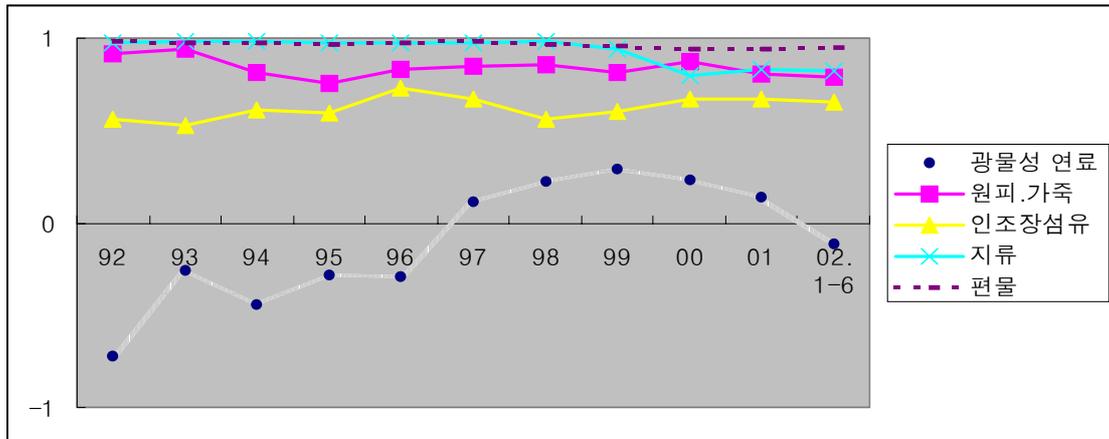
※ 품목별 무역특화지수 = (특정 품목의) 수출-수입/수출+수입
 * 1에 가까울수록 수출특화(경쟁력 강화), -1에 가까울수록 수입특화(경쟁력 약화)

주요 품목별 대중국 무역특화지수 추이(1)



주 : 품목은 2002년 1~6월 대중국 1~5위 수출품목(전기전자-기계류-유기화학품-합성수지-철강의 順)
 자료원 : KOTIS(www.kotis.net) 한국 관세청 통계기준

주요 품목별 대중국 무역특화지수 추이(2)



주 : 품목은 2002년 1~6월 대중국 6~10위 수출품목(광물성 연료-원피.가죽-인조장섬유-지류-편물의 順)

자료원 : KOTIS(www.kotis.net) 한국관세청 통계기준

□ 투자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입지선정

- 한편, 투자입지 선정을 위해서는 투자목적과 지역별 경영환경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나 많은 기업들이 지리적 인접성과 조선족 인력 활용여건만을 고려한 측면이 있음
- 이로 인해 산동성 등지에서선 한국투자기업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이 초래되기도 하고 투자진출 후 철수하는 사례도 발생
 - 2001년 말 현재까지 총 98건, 8억 5천만 달러 상당의 투자가 중국에서 철수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이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내수시장 진출 미흡

-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섬유, 의류, 전기전자, 신발, 가죽 등 저임 노동력을 활용한 제3국 수출형 제조업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내수시장 진출이 미흡함

-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면 가공무역형 투자 위주로써 내수시장과는 거리가 있음

□ 초창기 독자기업 선호에 따른 코스트 부담

- 초창기 한국기업들은 무조건적으로 독자기업을 선호해 토지 임차 등 경비부담 과다로 인해 경쟁력 약화 초래
 - 최근 중국의 개방확대 추세에 따라 외국인 독자투자 허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독자와 합자는 적어도 향후 4~5년 기간 중에는 투자기업의 현황과 업종, 경영전략에 따라 각각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독자기업 선호경향은 코스트 부담 외에도 내수시장 진출의 장애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 한국기업간 응집력 부족

- 홍콩과 대만기업들은 중국정부가 자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발표하면 공동으로 대응하지만 한국기업들은 응집력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일례로, 중국이 '90년대 말 밀수단속을 이유로 가공무역 보증금제도를 시행하자 중국내 홍콩기업단체들은 사실상의 압력단체로 작용, 실제 보증금제도의 완화방안을 이끌어낸 바 있음

□ 전문인력 부족

- 대기업을 제외한 상당 수 중소기업들이 사내 중국전문인력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투자 진출함
 - 이는 자연히 현지 조선족 인력에 대한 지나친 의존으로 이어져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함
 - 이는 홍콩 및 대만기업에 비해 절대 불리한 요소임

□ 소규모 투자 위주

- 중국측(대외무역경제합작부) 통계에 따르면, 1979~2001년 누계 기준 국별 대중국 건당 평균투자는 한국이 67.5만 달러로써 대만(57.7만 달러)보다는 많지만 일본(144.7만 달러), 미국(102.9만 달러), 홍콩(93.8만 달러)에 비해 소규모 투자 위주임
- 중국은 현지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해 투자이후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사례가 자주 발생함

3. 대응방향

□ 산업별 특화전략 수립

-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 업종별로 산업간 또는 산업내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산업별 특화전략 수립 필요
- 중국은 세계 주요 기업들의 생산기지로 급부상하고 있어 중국과 완제품 생산을 직접 경쟁하기 보다는 핵심 부품 및 소재, 중간재 공급에 특화
- 이와 함께, 지역별/계층별로 세분화한 목표시장 설정후 마케팅역량 집중

□ 內需시장 진출 가속화

- 대중 수출의 약 80%가 원부자재인 현재의 수출품목 구조를 소비자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고부가가치형 특화 상품으로 전환해야 함(일류화상품 개발 및 육성)

- 대중 투자도 가공무역업 위주의 제조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중국의 WTO 개방추세에 맞게 유통, 광고, 물류, 금융, 통신, 건설 등 신규 개방시장 영역으로 넓혀가야 함
- 다만, 투자기업의 경우, 공급과잉이 심한 품목이라면 시장상황에 따라 수출과 내수 비율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함

□ 新산업 분야 시장선점 노력

- IT, BT 등 떠오르는 新산업 분야 시장선점 노력이 필요
- 新산업 분야는 단독진출이 어려운 만큼 중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바람직하며 한국진출 중국기업과의 중국시장 공동진출 가능성도 타진해볼 필요가 있음

□ 저가 수출 지양

- 중국은 종래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주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의존했으나 WTO 가입 이후 반덤핑조사와 세이프가드 등 WTO 규정에 부합되는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지난 '97년과 '98년에 각각 2건과 3건에 불과했던 중국의 반덤핑조사는 '01년 6건으로 늘었고 '02년 들어 8월 9일 현재 세이프가드 1건을 포함해 9건을 기록하고 있음
- 밀어내기식 수출은 한국상품을 저가.저급상품으로 고착화할 우려가 있고 자칫 중국 측에게 반덤핑 조사 등 수입규제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음

- 시장 수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단순 가격경쟁력 보다는 차별화 위주의 제품개발 및 마케팅 전략에 치중해야 함

⇒ [첨부자료] 중국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02. 8. 9. 현재) 참고

□ 경기흐름에 대한 정확한 판단

- 최근 중국은 수급불균형에 따른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 시장에서 수요 측면의 물가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음
- 가격 하락세가 특히 심한 가전제품의 경우, 제조상들이 상품 가격 인하분을 원부자재 공급상에게 전가하는 사례도 있어 부품 공급상 비율이 높은 한국 투자기업의 경우, 거래선 다변화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다양한 투자기법 활용

-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은 '90년대의 무조건적 도입단계를 지나 선별적 도입단계로 이행하고 있음
 - 중국은 자국 산업고도화에 기여하는 기술도입을 선호하고 있어 대중국 기술투자가 가능한 부분을 도출해야 함
 - 저임금을 겨냥한 노동집약적 제조업투자는 세제 등의 혜택도 제한적이며 중국기업과의 관계에서 경쟁력 유지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
- 한편, 중국은 최근 M&A 관련 법규정비에 나서면서 외국기업의 중국기업 M&A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중국 M&A 시장 진출 가능성도 적극 모색해야 함

- M&A 투자는 외국기업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인 중국 내 유통망 부족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산업공동화 대책 모색

- 중국의 WTO 가입으로 향후 대중국 투자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한국내 산업공동화 대책을 민·연·관 차원에서 본격 모색해야 함

[첨부자료] 중국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02. 8. 9. 현재)

문의 : 박한진(chinapark@kotra.or.kr).<끝>

[첨부자료] 중국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02. 8. 9. 현재)

1. 2002년 수입규제 동향 및 특징

- 중국은 '97년 11월 10일 한국, 미국, 캐나다산 신문용지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 이후 총 21차례(철강 SG 1건 포함)의 수입규제 조치를 발동
- 2002년 8월 9일 기준 우리나라 상품은 중국으로부터 16건의 반덤핑(15건), 세이프가드(1건) 규제를 받고 있음
 - 규제 중 AD 3건, 조사 중 13건(AD 12, SG 1)
-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15개 품목 중 한국은 반덤핑 12개 품목, 세이프가드 1개 품목 등 13개 품목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어 최대 조사대상국임
 - 특히, 2002년 들어 8월 9일까지 조사 개시된 품목 9개 중 한국은 8개(반덤핑 7건, 세이프가드 1건)에 해당

<중국의 2002년 신규 對韓 제소현황>

연번	국 가	제 소 품 목	내 용	제 소	비 고
1	중 국	인쇄용지	AD	'01.12	조사(2. 6)
2	"	무수프탈산(PA)	AD	1.15	조사(3. 6)
3	"	합성고무(SBR)	AD	3. 4	조사(3.19)
4	"	냉연강판	AD	2.20	조사(3.23)
5	"	염화폴리비닐(PVC)	AD	3. 1	조사(3.29)
6	"	철강재	SG	4.19	조사(5.20)
7	"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TDI)	AD	4.17	조사(5.22)
8	"	페놀	AD	6.18	조사(8. 1)

<중국의 반덤핑(AD), 세이프가드(SG) 규제 현황>

2002년 8월 9일 현재

순서	대상국	품명	세번	조사개시	예비판정	최종판정	반덤핑세율
1	캐나다, 한국, 미국	신문용지	4801.0000	'97.11.10	'98. 7. 9	'00. 6. 30	9~55%
2	러시아	냉연규소강	7225.1110	'97. 3.12	'99.12.30	'00. 9. 11	6~62%
3	한국	PET필름	3920.6200	'99. 3.16	'99.12.29	'00. 8.25	13~46%
4	한국, 일본	스테인레스 냉연강판	7219.3100	'99. 6.17	'00. 4.13	'00.12.18	6~58%
5	일본, 미국, 독일	아크릴산에스테르	2916.1200	'99.12.10	'00.11.23	'00. 6. 9	24~74%
*6	한국, 영국,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염화메틸렌	2903.1200	'00.12.20	'01. 8.16(7%)		
7	한국, 일본, 태국	폴리스틸렌	3900.1900	'01. 2. 9	무혐의('01.12.6)		
*8	한국, 미국, 인니	라이신	2922.4110, 2922.4190	'01. 6.19			
*9	한국	폴리에스터 stable fiber	5503.2000 5506.2000	'01. 8. 3			
*10	한국	폴리에스터 chip	3907.6011, 3907.6019	'01. 8. 3			
*11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니	아크릴산 에스테르	2916.6019	'01.10.10			
12	일본,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러시아	에프시론카프로락탐	2933.7100	'01.12. 7			
*13	한국, 일본, 미국, 핀란드	인쇄용지	4810.1100, 4810.1200	'02. 2. 6	● 한솔, 계성, 신무림, 신호제지[4]		
14	EU	디하이드록시벤젠	2907.2910	'02. 3. 1			
*15	한국, 일본, 인도	무수프탈산(PA)	2917.3500	'02. 3. 6	● 애경, 고합, LG화학, 제철화학[4]		
*16	한국, 일본, 러시아	합성고무(SBR)	4002.1911 4002.1912, 4002.1919	'02. 3.19	● 금호석유화학, 현대석유화학[2]		
*17	한국, 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냉연강판	7209.1500, 7209.1600 7209.1700, 7209.1800 7209.2500, 7209.2600 7209.2700, 7209.2800 7209.9000, 7211.2300 7211.2900, 7211.9000	'02. 3.23	● POSCO, 동부제강, 현대하이스코, 유니온스틸, 삼성물산[5]		
*18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대만	염화폴리비닐(PVC)	3904.1000	'02. 3.29	● LG화학, 한화석유화학[2]		
*19	잠정SG 조치 한국은 前者7개 품목 해당	철강재(중후판, 박판, 전기강판, 스테인레스강판, 보통선재, 보통조강, 형강, 무계목강판, 반제품)		'02. 5.24	● POSCO(열연, 냉연), 연합철강, 동부제강, 현대하이스코(냉연강판) 동국제강, INI스틸(형강, 봉강) 등		
*20	한국, 미국, 일본	톨루엔디이소시안 네이트(TDI80/20)	2929.1010	'02. 5.22	● 한국화인케미칼, 동양제철화학, 한국바스프[3]		
*21	한국, 일본, 미국, 대만	폐놀	2907.1110	'02. 8. 1			

주 : 밑줄은 對한국 규제 중(3건), *는 對한국 조사 중(13건; AD 12건, SG 1건)

자료원 : 中國反傾銷反補貼保障措措施網上圖書館(www.cacs.gov.cn)

- 2002년 중 신규 반덤핑 피소품목은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중국시장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최종 판정 시 수출에 큰 타격이 우려됨
 - 인쇄용지(4810.11, 4810.12)는 각각 17%, 41%
 - 무수프탈산(2917.35) : 48%
 - 염화폴리비닐(3904.10) : 71% 등
 - 페놀(2907.1110) : 68%

<2002년 주요 반덤핑 피소품목별 對中 수출비중>

단위 : US\$ 천

세번	우리나라 총수출액	대중국 수출액	중국시장 비중
481011	409,025	70,400	17.2%
481012	514,342	212,556	41.3%
291735	67,595	32,320	47.8%
400219	173,054	45,855	26.5%
7209	991,467	225,462	22.7%
7211	60,717	14,540	23.9%
390410	199,722	140,923	70.6%
292910	162,729	56,028	34.4%
290711	18,713	12,671	67.7%

주 : 금액 및 비중은 2001년도 실적 기준

자료원 : kotis

- 종래 중국의 자국산업 보호수단은 주로 관세와 비관세 장벽이었으나 2001년 12월 WTO 가입 후에는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WTO 규정에 부합되는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중국은 이미 2001년 4월 반덤핑.반보조금 전문 웹사이트(中國反傾銷反補貼保障設施網上圖書館; www.cacs.gov.cn)를 개설한데 동년 연말까지 정부 부처에 국(局) 단위 부서를 신설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음

- 또한, WTO 관련 조항을 참고로 제정한 「반덤핑조례」도 2001년 11월 공포, 2002년 1월 1일부로 시행 중임

<WTO 가입을 계기로 신설된 중국의 정부 부처(局 단위)>

대외무역경제합작부(MOFTEC)

- |
- |-- ● WTO조직국(世界貿易組織司)
 - | ○ 기능 : WTO 관련 협상, 연락업무 등 처리
 - | ○ 조직 : 화물무역처, 서비스무역처, 통보심의처, 종합처, 관공실
 - | 자문 및 기술원조처 등 6개 處
 - | * 국장 : 前MOFTEC 국제국(國際司) 허닝(何寧) 부국장
- |
- |-- ● 수출입공평무역국(進出口公平貿易局)
 - | ○ 기능 : 반덤핑.반보조금 제소 및 피소관련 업무 처리
 - | ○ 조직 : 반덤핑처, 무역장벽처, 종합처 등 6~7개 處 예상
 - | * 국장 : MOFTEC 방직품쿼터관리 전문가 왕스춘(王世春)
- |
- |-- ● WTO통보자문국(世貿組織通報諮詢局)
 - | ○ 기능 : 중국의 대외무역정책 및 조치 대외 통보

국가경제무역위원회(SETC)

- |
- |-- ● 반덤핑조사국(反傾鎖調查局)
 - | ○ 기능 : 반덤핑.반보조금 제소 및 피소관련 조사업무 처리
- |
- |-- ● 산업피해조사국(產業損害調查局)
 - | ○ 기능 : 반덤핑.반보조금 관계법 입안, 산업피해조사 및 판정, 산업피해예고제도 운영

2. 2002년 하반기 중국의 수입규제 전망

- 중국은 향후 WTO가 인정하는 범위 내의 규제조치인 반덤핑조치, S/G 등을 더욱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심화되는 중국내 공급과잉 현상도 앞으로 반덤핑조사 등 수입규제 조치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

- 중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2002년 상반기 중 이미 2001년 실적을 초과해 2002년 하반기 중 보다 확대될 것으로 우려됨

- 중국의 반덤핑조사 품목은 주로 원부자재에 집중돼 있고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품목은 80% 이상이 원부자재여서 저가의 밀어내기식 수출을 할 경우, 중국의 반덤핑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일부 수출기업들은 수입관세 부담을 줄이려는 중국 수입상의 요구에 따라 물건 값을 깎아서 신고하는 소위 '언더밸류'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행위도 자칫 반덤핑 규제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끝>